

한국 교육에 미친 외국 교육원조의 영향: 충남대-GTZ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박환보**

요약

본 연구는 해방 이후 한국 교육 형성에 있어 외국의 교육원조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70-80년대 외국의 교육원조 사업 중 한 사례인 충남대학교-GTZ 협력 사업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독일 교육원조가 한국의 공업계 교원양성 교육과정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당시 충남대 측의 사업 책임자가 소장하고 있던 사업 관련 자료를 비롯해서, 사업에 참여한 독일인 전문가와 한국인 교수가 작성한 논문, 당시의 신문기사, 정부 공문서 등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충남대-독일 GTZ 프로젝트는 기자재와 장비 활용이라는 기술적인 측면 외에 공업계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개선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사업 기간 중에 강조되었던 연구와 실험실습도 예산지원이 있었던 사업 기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진행되었고, 현장실습이나 연구과제 수행과 같은 독일식 교육과정이 수용되지 않았다. 이는 1950-60년대에 비해 1970-80년대는 어느 정도 제도교육의 기반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 교육원조의 영향력도 제한적이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교육원조, 공업교원교육, 독일, 직업교육, 국제이해

* 이 논문은 2020년도 한국교육사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 충남대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교신저자), hwanbo@gmail.com

I. 서론

이 연구는 국제이해교육 콘텐츠로서 해방 이후 한국 교육에 미친 외국 교육원조의 실행 과정과 결과를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1945년 해방과 한국 전쟁을 거치며 폐허가 된 상황 속에서 한국은 교육 재건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각종 물자, 자본, 기술 및 인력 지원 등 여러 형태의 지원을 받았다. 해방 직후 한반도에 들어온 미국은 점령지역 행정구호원조(Government Appropriation for Relief in Occupied Area, GARIOA)의 재원으로 미군정을 통해 학교에 급식이나 도서 지원과 같은 물적 원조를 제공했으며, 농업기술 훈련을 비롯한 기술협력 사업도 추진하였다. 한국 전쟁 이후에는 주한미군의 대민원조 프로젝트(Armed Forces Assistance to Korea, AFAK)와 주한미국 경제원조처(United States Operations Mission, USOM)를 통해 거의 모든 교육 분야에 대한 원조 사업이 추진되었다. 1950-60년대 미국의 FOA(Foreign Operation Administration)를 통해 한국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 되었으며(김명진, 2010), 서울대-미네소타대학 프로젝트, 피바디 사범대학의 코리아 프로젝트, 워싱턴대학 경영학 교육원조 프로젝트 등 한국의 주요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교육원조를 통해 지식인 양성을 지원하였다.

1960년대 이후에는 한국 교육에 대한 기술협력과 원조 공여국이 독일, 영국, 일본 등으로 다변화되었다. 1958년 미국의 경제 보조금이 급격히 줄어들자 한국의 경제는 병목현상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새로운 원조국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미국을 대신할 서방국가로서 독일이 한국에 대한 기술원조의 협력국으로 부상하

였다(유진영, 정기섭, 2016). 한국과 독일은 1961년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협조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협력 사업을 추진하였다(나혜심, 2014). 특히 독일의 대한 기술원조는 농업, 산업화, 교육분야에 제공되었고, 1960-1970년대 한국 정부가 추진했던 기술인력 양성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되었다(알텐호펜, 2019). 1962년 정부는 경제개발5개년 계획의 보완계획으로 기술진흥 4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산업교육진흥법(1963년), 직업훈련법(1967년) 제정 등, 체계적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을 추진하였다(정진성, 2016). 그리고 이 과정에서 1965년에 최초의 독일식 직업학교인 ‘한독실업학교’가 인천에 설립되었고, 여기에는 독일식 실습용 기자재가 제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독일고문관이 수업을 하고 독일식 실습교육도 이루어졌다(유진영, 정기섭, 2016). 한독실업학교의 성공을 통해 부산에 제2의 직업교육학교가 설립되었고, 독일은 그 이후에도 나주 호만애암, 한독고등기술학교, 부산 한독경영정보여자고등학교, 부산 한독직업훈련소, 고려대 농과대학, 충남대 공과대학, 창원기능대학 등의 설립과 교사연수 등을 지원하였다(알텐호펜, 2019).

직업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외국의 원조는 독일뿐만 아니라 UNDP, ILO, 일본, 미국, 벨기에 등의 국가도 참여했지만, 그 중에서도 독일의 교육원조는 1970년대 초반부터 1990년 후반까지 약 20년 동안 한국 직업훈련분야의 체제와 내용을 구성하는데 구체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유기승, 전상용, 2021). 이에 따라, 학계에서도 한국 직업교육훈련 분야에 미친 독일 원조의 영향이나 한국과 독일의 직업교육 분야 교류의 의미를 밝히려는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진영과 정기섭(2016)의 연구는 최초의 독일식 직업학교인 ‘한독실업학교’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기존의 정규교육 체제와는 다른 형태의 직업교육기관이 설립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유나연과 박환보(2018)의 연구는 제도교육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1970년대 공업계 교원양성이라는 새로운 교육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독일의 기술원조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다루었다. 또한 유진영과 김기홍(2023)은 보다 통시적인 안목에서 한국과 독일 간에 직업계고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교류 사례를 살펴보고 이러한 교류의 역사적 배경과 현재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이외에 나혜심(2014; 2017)의 연구와 알텐호펜(2019)의 연구는 독일의 개발원조정책과의 관계나 개발담론의 관점에서 독일의 교육분야 원조 사례를 분석하였다(나혜심, 2014, 2017; 알텐호펜, 2019). 유기승과 전상용(2021)의 연구도 이와 유사하게 개발협력의 관점에서 독일의 한국에 대한 ODA 지원 사례를 분석했으며, 특히 수원국으로서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공여국으로서 직업훈련 분야 원조 추진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독일’과 ‘한국’이라는 양자 관계 속에서 독일의 한국 교육에 대한 원조가 왜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로 한국 교육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공여국으로서 독일의 영향을 강조하거나 독일의 교육제도가 수용된 결과에만 주목했기 때문에, 외국의 교육원조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은 점이나 그 이유와 같은 측면은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1970년대 외국의 교육원조 사업 중 한 사례인 충남대학교 공업교육대학 지원 사

업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교육원조의 영향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1970-80년대 독일의 교육원조를 통한 공업계 교원양성교육에 관한 연구의 후속 연구에 해당하며, 새로운 사료발굴을 통해 교육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공업계 교원양성교육에 미친 교육원조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당시 충남대 측의 사업책임자가 소장하고 있던 사업 관련 자료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활용하였고, 이외에 사업에 참여한 독일인 전문가와 한국인 교수가 작성한 논문, 당시의 신문기사, 정부 공문서 등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II. 충남대 공업교육대학의 등장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에 필요한 기능 인력은 학교교육과 직업훈련의 두 가지 통로를 통해 양성되었다(유광호·류석춘, 2015). 학교교육은 문교부의 실업교육진흥 정책을 토대로 기계공고 육성, 시범공고 설립, 특성화공고 지원 등 기존의 실업계 고등학교 중에서 공업계 고등학교의 교육을 강화하였다. 직업훈련은 공공직업훈련과 사내직업훈련으로 구분되며, 공공직업훈련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가르치며 개발원조를 통해 활성화되었다(정택수, 2008).

1973년 정부는 국가산업을 강철, 조선, 기계,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선도할 것을 선언하면서 이를 주도할 산업기술 인력의 정예화를 기본방침으로 하여 공업교육을 혁신하였다(한국직업능

력개발원, 1998). 이를 위해 정부는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공업고등학교의 유형화 정책과 공업계 전문대학 및 공과대학의 특성화 정책을 추진하였다(김영화 외, 1990). 1960년대 중반에 들어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률이 크게 향상되고, 1970년대에는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자 당시 문교부는 실업계 학교의 정원을 대폭 증원하였다.

1970년대에 중화학공업 중심의 실업교육 진흥을 위해 공업계 고등학교의 유형화 정책과 산학협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1973년에는 산업교육진흥법을 개정하여 실업계 학교 학생들의 재학 중 산업체 현장실습을 의무화하였다(김영화 외, 1990). 그러나 정부의 실업계 고등학교 증원 및 실습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당할 수 있는 교원의 충원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다(한국교육30년편찬위원회, 1980). 따라서 증가한 공업계 고등학교의 교원 양성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학의 공과대학이나 사범대학 내에 공업교육과를 설치하고, 공업계 고등학교 교원을 양성하고자 했으며, 충남대학교에도 1970년에 공업교육과를 설치하고 기계, 전기, 전자, 화공 분야의 교원 양성 교육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공업계 교원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비해 실제로 교직에 진출하는 졸업생의 비율이 매우 낮았고, 실험실습기자재 부족으로 인해 공업교육과의 특성을 살린 학과 운영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같은 시기에 정부는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산업화의 추진에 필요한 인력수요를 조화시키기 위해 공과대학의 특성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공과대학 특성화 사업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의 산업적 특수성에 적합한 특성화학과 집중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되었

고, 부산대공대는 기계계열로, 경북대공대는 전자계열로, 전남대공대는 화공계열로, 충남대공대는 공업교육대로 각각 육성하기로 했다(유나연·박환보, 2018). 이처럼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이라는 대전제 아래, 공업계 교원양성이라는 중등교육 정책과 공과대학의 특성화라는 고등교육 정책의 접점에서 충남대 공업교육대학이 탄생하였다.

III. 충남대-GTZ 프로젝트의 추진 과정

충남대-GTZ(Deutsche Gesellschaft für Technische Zusammenarbeit, GTZ) 프로젝트는 1974년 한독경제협력회담에서 논의되었으며, 대덕연구단지 조성¹⁾에 따른 충남대 공과대학의 확장 이전에 필요한 장비와 기술 훈련을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²⁾. 사실 초기의 사업 구상은 충남대 공과대학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새롭게 조성할 대덕연구학원단지²⁾ 내에 독일의 공과대학(Technische Hochschule)과 같은 종합공대 신설 지원을 목적으로 기획했으며, 이를 위해 독일에 체류 중인 한국인 과학자의 참여와 지원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³⁾

- 1) 충남대학교 공업교육대학 독일 무상 원조 종합보고, 1977.7.15. (충남대 내 부문서)
- 2) 대덕연구단지 조성사업은 197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일본의 쓰쿠바 연구학원도시를 모델로 한 학원형 전원도시로, 기능면에서는 중화학공업을 지원하는 연구개발기능의 집합체적 성격을 띠었다(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 2003).
- 3)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설문서, 1975.10.1. (충남대 내 부문서)

<표 1> 대덕공과 대학에 대한 경위, 재독과협의 신설방안 내용 및 설문지 (1975.10.1.)

1. 경위

발론: 작년 여름 개인휴가로 일시 귀국한 이춘식 회장이 과기처를 방문 최형섭 과기처 장관으로부터 대덕연구학원도시 설계도에 대하여 설명들을 기회가 있었으며, 이 자리에서 그곳에 세워질 공과대학을 독일의 T.H.와 같이 운영할 것과 이에 재독 과학기술자들을 대폭 기용하고, 그 외 이, 삼개 전략 연구소에도 주요기간 요원으로 참여하도록 함이 좋을 것이란 의견 교환이 있었음.(대덕연구학원도시에 대하여는 재독과협회보 제5호 참조)

추진방안위임: 최형섭 과기처 장관께서는 지난봄 심포지움 참석차 귀국한 기간, 금속공학 전공의 회원들을 과기처 초치 회견하는 자리에서 이들이 주동이 되어 대덕공대신설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후일 이에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 (회보 7호 참조)

(중략)

2. 대덕공대 신설방안의 주요 내용

대학의 특수성: 한독기술협정에 의한 한독 양국정부가 공동으로 투자, 운영, 관리하는 국립대학으로 우리나라 교육법 기본 제정정신에 저촉되지 않는한, 현 서독의 T.H.와 같이 교과과정, 학사규정, 학사운영에 자율권을 갖는다.

(중략)

학제: 본 대학은 학사학위과정을 위한 준비과정, 학사학위과정(Vordiplom 해당), 및 석사학위과정(Hauptdiplom 해당)의 3단계의 수업과정이 있으며, 원칙적으로 이들 3개 과정은 여이어 수업하므로써 사회에서 기대하는 자립적인 기사가 배출되도록 강의 및 실험, 실습과목들이 정하여져 있다. 단 학사학위과정에서 수업은 중단할 수 있으며, 이때 이들이 국내 다른 대학을 졸업한 학사와 적어도 동등한 상의 학식과 기술을 겸비하도록 교육을 받게 한다. 준비기간은 1년으로 년말시험에 합격하여야 학사학위과정에 진입되며, 1차에 한하여 재수강후에 허용된다.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및 실습규정은 10년전 독일 T.H.의 규정과 비슷하며, 박사학위는 독일 공대규정과 비슷하다.

그러나 이미 1974년 5월 한독경제협력회담에서 충남대 공과대학의 확장 이전에 따른 시설 확충을 요청했고, 8-9월에 세부계획을 마련하였다. 이에 1974년 10월에 독일조사단이 내한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1975년 5월의 경제협력회담을 통해 화공과 및 기계과의 확충 사업으로 범위를 한정된 후 1975년 9월에 독일 정부의 최종 승인으로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확충 사업이 확정되었다.⁴⁾ 1976년 4월 14일에는 대덕연구학원단지 건설계획이 수정되어, 기존의 종합공대 신설 계획을 취소하고, 향후 대학원 입주와 충남대 공대부터 이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 2003). 초기의 사업 내용을 보면, ‘중화학 공업의 관련 학과인 기계, 화공, 금속공학과를 지원하되, 교수연구용을 제외한 학생 실험 실습 기본 장비만 공급하고, 기술원조로서는 젊은 교수 8명을 1년씩 훈련시키고 독일 전문인 1인이 1년씩 파견되어, 실습기재 설치·가동 등의 기술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1977년부터 충남대 공업대학이 정부 정책에 의해 공업교육대학으로 개편됨에 따라, 충남대에 대한 독일의 기술협력사업도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유나연·박환보, 2018). 이 과정에서 독일 정부는 공학교육 및 연구 기능의 강화라는 본래 목적을 유지할 것을 주문하였고, 사업 내용의 변화를 이유로 지원사업 중단 및 사업 대상의 변경까지 요구하였다. 독일의 지원사업 중단은 공업교육대학 특성화와 캠퍼스 구성에 상당한 위기로 작용했고, 정부는 충남대를 통해 서둘러 해명자료를 만들어 공업교육대학 설립의 당위성과 사업 지속의

4) 충남대학교 공업교육대학 독일무상원조 종합보고, 1977.7.15.(충남대 내부문서)

5) 공업교육대학의 수원의 필요성, 1978. 1. 13. (충남대 내부문서)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공업교육대학 특성화를 통한 공업계 교원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공업교육대학이 명칭만 바뀌었을 뿐 교과내용은 근본적으로 같기 때문에 초기에 한독 양국 정부가 합의한 공과대학 지원사업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⁶⁾ 그리고 이러한 설득 작업을 통해 독일 정부는 한국 정부와 충남대 측의 요구를 수용하고, 1979년 8월 24일 ‘대한민국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충남공업교육대학 지원사업을 위한 각서교환’ 서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업이 시작되었다.

사업 기간은 1979년 8월부터 1992년 12월까지 3차에 걸쳐 본 사업과 1회의 사후관리 사업으로 진행되었고, 이 기간 동안 독일 정부는 실험실습기자재 지원, 교수매체센터 설치, 독일전문가의 내한과 충남대 교수들의 파독 연수를 위해 총 1,560만DM을 지원하였다(유나연·박환보, 2018). 협정서에 따르면, 독일의 충남대 공업교육대학에 대한 지원 사업은 기계공학 및 화학공학분야 공업교사 훈련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시범학과를 설치하고 시험적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한국의 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공업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공업교사들의 훈련을 수행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⁷⁾ 그리고 독일과 맺은 협정서에는 충남대 공업교육대학에서 모든 분야 공업교사들에게 현대적 훈련개념 도입의 기초를 마련해 주기 위하여 교육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공업교사의 훈련은 기술교육·실습교육·교직교육이 균형된 비율로 구성된 한국적 여건

6) 공업교육대학 설립 해명자료, (충남대 내부문서)

7)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194299. 관보 8345호(1979.9.10. 월요일, 외무부고시 제47조),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정부 간의 충남공업교육대학 지원사업을 위한 각서 교환

에 알맞은 교과과정에 따라 실시되며, 교직교육은 전체 강의시간수의 약 20%를 구성하도록 한다고 교육과정 개발 지원을 명시하였다.

IV. 충남대 공업교육대학 교육과정 개선에 대한 논의

충남대 공업교육대학의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내용은 제11차 한독 경제실무자 회담 의제로 제출된 진행중 사업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업교육대학을 근대화함으로서 기술과 교수법의 질을 향상시키고 독일 측에서 권장하는 교과과정과 독일의 공업기술 실험실습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한국의 중화학공업에 필요로 하는 기능인을 양성할 실과교사 양성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사업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 목적에 따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인 1978년에 Nolker와 Schoenfeldt, 2명의 독일인 전문가들이 충남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협정서에 명시한 바와 같이 교육과정 개선을 권고하였다. 또한 충남대에 파견된 독일인 직업교육 전문가는 독일의 공업계 교원양성 교육제도와 교육과정을 소개하고(Bode, 1980), 한국의 공업교육과 공업교사 교육의 과제에 대한 분석도 진행하였다(Bode, 1982). 공업교육대학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핵심적인 논의는 교수법을 포함한 교직과목 확대, 전공교과 개편, 산업체 현장실습 확대의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1. 교직과목 확대

우선 교직과목 확대에 대한 논의는 공업교원양성이라는 목적에 맞게 교양교과, 전공교과, 교직교과의 영역별 편성 비율을 조정하고 특히 교직과목의 편성 비율 확대를 제안하였다. 공업교육대학으로 개편 이전에 147학점(교양 24, 공학기초 18, 전공 105)으로 구성되었던 이수학점은 178학점(교양 18, 교직 20, 공학기초 37, 전공 103)으로 개편되었다.⁸⁾ 이러한 학점 체제 개편은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교직과목 신설과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공학기초 과목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우수한 실과교사 양성을 위해서는 전공과목에 대한 교육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다(맹기석 외, 1981)’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반면에 독일인 전문가는 전공교과(전공, 공학기초)보다 교직과목의 편성비율을 20%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국과 독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은 전공교과의 편성 비율이 매우 높고, 독일은 전공교과에 비해 직업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독일의 공업계 교원양성교육은 전문교과, 직업교육 교과, 선택과목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며, 교직에 해당하는 직업교육 교과의 편성 비율이 약 28%를 차지한다(Bode, 1980). 직업교육 교과는 직업교육의 교사로서 전문성을 갖추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육이론, 직업교육, 교수법, 세미나 등의 교과목으로 구성된다. 특히 독일의 교원양성과정은 전공과목에서도 특정한 기술분야의 교과교육이나 교수법 관련 수업과 세미나를 운영하고 있었다(Bode, 1980).

8) 충남대학교 내부문서(작성일 불명). Comparison of credit in curricular.

<표 2> 충남대와 독일의 교육과정 비교

	충남대	독일(Hamburg대학의 예)
교양교과	11.3	28%
전공교과	76.3	44%
교직	12.5	28%

출처: 연구자 작성(충남대 교육과정은 충남대학교 내부분서, Comparison of credit in curricular, 독일 자료는 Bode(1980). 참조)

당시의 한국인 교수들도 교직과목의 편성 비율이 낮다는 점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지만, 전공교과 교육의 중요성을 넘지는 못했다. 따라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업교육교수법(3학점)을 교직필수교과로, 직업교육론(2학점)을 교직선택교과로 신규 편성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개선하였다.

2. 전공교과의 개편

전공교과의 개편 방향은 단순한 지식과 이론의 습득이 아니라 실험실습과 과제 해결을 통해 현장 적합성을 높이는 것이었다. 독일 전문가는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 교육과정에 대해 분석하고 교과내용 권고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해당 학과 교수들이 의견을 제시하였다.

화학공학과는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문제되지 않으나, 기계공학과는 4개의 전공분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근접한 공작전공분야와 비교할 때 위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작집, 동

실습 같은 과목은 공업교육대학이 훨씬 많고, 독일측은 졸업논문과 연구과제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는 거의 같다.

특히 독일은 실험물리에 많은 시간을 배정하고 있어 우리도 이를 고려해야 될 것이다.

독일 측이 권장하는 졸업논문은 4학년 말 학기를 완전히 접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한국은 4학년에도 많은 학점이 배정되어 도저히 좋은 졸업논문을 만들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적은 것이 결점이다.

위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독일의 전문가들은 전공교과 내에서 실험실습과 졸업논문을 강조하였다. 기계공학과와 교육과정 비교표를 보면, 공업교육대학은 졸업과제를 2학점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반해, 독일측은 연구과제 14학점, 졸업논문 24학점의 총 36학점 편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독일의 대학교육 또는 공업계 교원양성교육의 특징에 근거한 것이지만, 한국의 학사 운영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웠다. Bode(1980) 교수는 독일의 공업계 교원양성교육에 대해, ‘대입자격을 갖춘 자와 이미 공학사를 소지자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공에 해당하는 전문교과는 특정한 과학기술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이론과 실습, 그리고 과제연구 수행의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한다. 특히 공학사 소지자의 경우에는 이미 특정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문교과목 이수시간이 단축되고, 주로 과제연구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처럼 독일의 대학교육에서 전반적으로 강조되는 ‘실험실습, 연구과제수행(논문), 세미나’ 등은 전공교과 운영의 기초적인 원리로 통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독일의 전공교과 운영 중에서 실험실습은 새로운 장비와 기
자재 활용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수용할 수 있었지만, 이미 기초과목
이수 학점이 증가한 상황에서 제한된 졸업학점 내에서 연구과제와
세미나 운영까지 받아드리기는 쉽지 않았다.

특히 한국인 전문가와 독일인 전문가 사이에는 공업교육대학의 전
공교과 운영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가 전혀 달랐기 때문에, 교육과정
의 개선 방향도 합의되기 어려웠다. 이러한 전공교과 운영에 대한
문제의식 차이는 ‘공업계 고교 출신자의 기초학력 문제’와 ‘인문계
고교 출신자의 현장경험 부족’이라는 서로 다른 출발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인 교수들은 공업교육대학의 당면과제로서, ‘1) 교육목표의 확
립과 교육과정간의 합리적 연계성, 2) 설치학과의 분야 및 학생정원
과 교사수요와의 상관성, 3) 교직 및 교양, 전공교과의 구성과 이수
학점에 대한 타당성, 4) 동일계(50%) 및 일반계(50%) 출신자의 학력
평준화를 기하기 위하여 이원화 교육과정을 실시중인 바, 이에 관한
효과검증 및 개선방안, 4) 공업교육대학 졸업생과 공고 실과교사 및
인문계 기술·공업교과교사 수급간의 차질 가능성과 졸업생의 평생
교육 관점, 그리고 교직과 산업현장간의 교류 가능성 등을 감안한
진로지도 및 이에 관련된 교육내용, 6) 공업고등학교 특성화에 따른
교사의 양성과 재교육, 7) 전문대학의 교수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한
국공업교육의 학문적 정착을 위한 공업교육연구소의 운영 및 지원책
강구’의 7가지를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도 특히 ‘3) 교육과정, 4)이원
화 교육과정, 4) 공고실과교사의 수급 차질에 따른 진로지도방안’의
세 가지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다루었다(김영전 외, 1980).

정부의 실업교육진흥 정책으로 인해 우수한 실업계 교사 수요가 증가했지만, 졸업생들이 교직으로 진출하지 않았고, 이직율도 높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충남대학교 공과대학을 공업교육대학으로 확대 개편하고, 대학 특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특전을 제공하였다. 공과대학의 특성화 정책은 1971년 9월 문교부가 기존의 교육정책심의회에 고등교육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고등교육개혁 사업을 주관하도록 했는데, 위원회에서 제안한 개혁안 중의 하나이다(김영화 외, 1990). 공과대학 특성화 사업은 지역산업과의 관련에 따라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학과로 지정되면 실험기구 지원, 정원 조정, 시설지원, 외자 도입 등의 각종 혜택을 부여했다. 문교부는 1973년 10월 지역대학 특성화계획을 확정하고, 충남대의 경우 공업교육과가 특성화학과로 선정되었다. 이후 1977년에는 공과대학의 공업교육과를 공업교육대학으로 확대 개편하고, 다른 13개 대학에 설치된 공업교육과는 폐지하였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8). 특히 공업교육대학은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급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대학입학예비고사에 합격, 진학하고자 할 때에는 입학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입학시험을 면제받고 특별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특전을 제공하였다(한국교육30년편찬위원회, 1980).

그러나 대학 내부에서는 동일계 진학자의 기초학력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한국인 교수들은 일반계와 공업계 고등학교 출신 입학자 간의 기초학력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실업계 출신의 무시험전형 비율 축소를 제안하였다(김영전 외, 1980). 한국인 교수들이 제안한 내용은 그대로 현실화되어, 문교부는 1981년에 발표한 대학입시 개선방안에서 실업계고교출신 학생의 대입 동일계 진학 특례를 83년

까지만 인정하고 그 뒤는 폐지한다고 발표했다(유나연·박환보, 2018). 반면에, 독일인 전문가인 Bode 교수는 동일계 출신 입학자 축소에 관한 정부 방침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오히려 직업현장 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계 고등학교 출신자들이 공업계 교원양성교육 기관에 입학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Bode, 1982). ‘비록 아직까지는 공업계 고등학교에서도 직업현장 경험이 부족하지만, 공업계 고교 출신자들은 최소한 서로 다른 물질의 특성을 알아내는 법, 도구사용법 등 특정한 직업기술 분야에서 다루는 이론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공업계 교원양성교육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한다. 반대로 공업교육대학에 입학하기를 희망하는 인문계 고등학교 출신자들을 입학 전에 최소 6개월 정도 전문교과에서 이론적 실제적 훈련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학교의 이론수업과 산업체의 현장실습의 결합이라는 독일식 이원화제도(Dual System)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다(유진영, 정기섭, 2016).

그러나 공업교육대학의 교수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을 강조했고, 이를 위한 기초학력의 문제가 더욱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었다. 또한 교육과정 운영 자체를 ‘학교에서 이론수업과 산업체의 현장실습’이라는 관점으로 보는 독일인 전문가와 다르게, 한국인 교수들은 ‘학교 내에서 이론과 실험실습을 모두 습득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계 출신자의 기초학력 부족 문제는 공업교육대학 교육과정 운영 전반의 부담으로 인식되었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업기초교과목의 확대 편성은 교직과목이나 현장실습을 확대하는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

3. 현장실습의 강조

산업체 현장실습은 독일의 충남대 공과대학 지원 사업 때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내용이다. 초기의 사업 내용을 보면, ‘중화학 공업의 관련 학과인 기계, 화공, 금속공학과를 지원하되, 교수연구용을 제외한 순학생 실험 실습 기본 장비만 공급하고, 기술원조로서는 젊은 교수 8명을 1년씩 훈련시키고 독일 전문인 1인이 1년씩 파견되어, 실습기재 설치·가동 등의 기술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⁹⁾ 현장실습에 대해서는 오히려 충남대 측에서 강하게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공업교육대학으로 개편으로 인해 독일의 개발원조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충남대 측에서는 공업교육대학 지원 사업이 오히려 독일 측이 사업 초기에 권고했던 ‘실습위주의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하였다.

<표 3> 공업교육대학 설립 해명자료

1. 공업교육대학 설립의 취지

본 대학의 독일원조 계획을 위한 신청시(1974.9.1.)는 애초에 그와 같은 변경을 전제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공과대학이 공업교육 대학으로 바뀌에 따라 우리들의 계획에는 사실상 큰 변동이 없다. 명칭상의 변경이 문제되고 사실상의 교과내용은 근본적으로 같다. 우리들의 교육과정은 공과대학이 실습위주에 교육을 하도록 되어있다.

현행의 교육시행령의 테두리 안에서는 공과대학이 원칙적으로 실험실습을 위주로 하는 제도로 고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문교부는 한국에 있어서의 다른 공과대학과 다른 공업교육대학의 설치를 결정하였다. 즉 이 공업교육대학은 한국에 있어서의 유일한 대학이다.

9) 공업교육대학의 수원의 필요성, 1978. 1. 13. (충남대 내부문서)

2. 공업교육대학 개편에 따른 당초 계획과의 관계 분석

(개요) 공업기술협력공사가 독일 경제협력성 바맬트 박사에 부친 서한에서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공과대학의 계획은 실습위주로 되어야만 한다고 강조된바 있다. (기술협력공사는 애초에는 공과대학을 독일에 있어서의 전문학교 기준으로 만들려고 까지 했다. 그러나 이것은 후에 수정된바 있다. 참조: 전 박희범 총장서한 1976.1.7.)

(중략)

ㄱ) 금년(1977)부터 전문학교뿐 아니라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실습교사를 두도록 문교부에서 결정된 바 있다.

ㄴ) 대학과정을 마친 뒤에는 1급 기사와 전문학교 및 인문고등학교에서 실습교사의 자격을 얻는다.

특히 공과대학을 독일의 전문학교 기준으로 만들려고 까지 했다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사업 초기에 독일인 전문가들이 강조했던 내용은 대학에서의 이론교육과 산업현장에서의 실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학을 엘리트 양성기관으로 인식하는 한국 대학 교수들에게 대학의 교육과정에 산업현장에서의 실습을 확대하라는 요구는 수용하기는 어려운 조건이었다. 이에 따라 공과대학 지원 사업에서는 그 타협점을 대학 내에서 실험실습을 지원하는 정도로 타협점을 찾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공과대학에서는 실습위주의 교육, 즉 산업현장 실습이 어렵지만, 왜 공업교육대학에서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을까? 이는 특성화 공과대학 정책의 취지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과대학 특성화 사업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의 산업적 특수성에 적합한 특성화학과에 대해 집중 지원하고,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현

장실습과 실험실습을 강화하였다(김영화 외, 1990). 따라서 한국 측은 공업교육대학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 독일 측이 제안한 ‘실습위주의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본 것이 아니라, 공업교육대학 개편의 근거가 되었던 공과대학 특성화 정책에서 ‘실습위주의 교육’이 강조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현장실습을 강조하는 실습위주의 교육은 대학 교육과정 내에 자리매김하기 어려웠다. 또한 현실적으로 산업체 현장에서도 실습생을 받아 훈련할 여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산업체 현장실습을 의무화했음에도 1개월 정도의 참관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맹기석 외, 198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1970년대 외국의 교육원조 사업 중 한 사례인 충남대-GTZ 프로젝트 사례 분석을 통해 외국의 교육원조가 한국 공업계 교원양성 교육과정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당시 충남대 측의 사업책임자가 소장하고 있던 사업 관련 자료를 비롯해서, 사업에 참여한 독일인 전문가와 한국인 교수가 작성한 논문, 당시의 신문기사, 정부 공문서 등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충남대-독일 GTZ 프로젝트는 기자재와 장비 활용이라는 기술적인 측면 외에 공업계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개선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사업 기간 중에 강조되었던 연구와 실험실습도 예산지원이 있었던 사업 기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진행

되었고, 현장실습이나 연구과제 수행과 같은 독일식 교육과정은 수용되지 않았다. 결국 충남대 공업교육대학은 새로운 제도로 자리매김하지 못했고, 교사 공급과잉과 미발령 문제 등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1985년에 다시 공과대학으로 개편되었고, 공업계 교원 양성도 공과대학 내의 학과 단위로 회귀하였다(유나연·박환보, 2018).

이러한 사례는 외국의 교육원조가 지원 시기나 지원 대상의 특성에 따라 그 영향력과 변화의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1950-60년대 외국의 교육원조 사업은 전후 복구와 제도적 기반 마련의 성격이 강했고, 외국의 재원과 기술을 속히 도입하고 한국의 실정에 맞도록 적용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다. 따라서 한국 교육이 갖고 있는 역사·사회·문화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제도적인 차이에만 주목했다더라도, 공여국에 비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다는 점에서 교육원조는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1960년대 새로운 공여국으로 등장한 독일의 개발원조도 직업교육훈련 분야를 중심으로 매우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만들며 직업교육훈련 제도 형성에 지속적으로 기여하였다(유기승, 전상용, 2021). 독일의 개발원조도 직업훈련 분야에서는 기존의 제도 교육과는 다른 형태의 교육기관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학교 시설과 운영상의 갈등보다는 성공적인 결과물로 평가 받는다. 한독실업학교의 설립과 성공적인 운영은 다른 직업학교 확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독일식 직업교육이 한국에 수용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유진영·김기홍, 2023).

그러나 1970년대 이후에는 이미 교육제도가 어느 정도 정비되고, 한국의 맥락에 맞는 교육정책 개발과 실행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로 인해 외국의 교육원조를 매개로 한 기술지원이나 조언을 일종의 간섭으로 여기며 비판하는 모습도 보인다(유나연·박환보,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개발원조는 특정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뿐 아니라 자원 확보 자체가 매우 중요했다. 따라서 교육원조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공여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실행 과정에서는 일부만 반영하거나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또한 새롭게 등장한 공업계 기술교원 양성기관의 역할이나 교육에 대해서도 한국과 독일 간의 인식 차이가 존재했고, 이는 원조 사업의 진행과 내용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이 시기의 기술 습득은 제도화된 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선배 세대로부터 경험적인 노하우를 이어 받고 동시에 이론적 교육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선진기술을 배우면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이루어졌다(유진영·김기홍, 2023).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 교수들에게 공업계 교원양성기관은 직업기술을 습득하는 기관이 아니라 대학 수준의 전문지식을 배우는 대학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따라서 독일 전문가들이 제안한 현장실습이나 연구과제 수행과 같은 구체적인 독일식 교육과정은 수용되지 않았고,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만 활용되었다.

해방 이후 한국 교육 형성에 있어 외국의 교육원조는 매우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공여국의 영향을 받은 교육제도나 기관이 설립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충남대-GTZ 프로젝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은 외국 정부나 파견된 전문가들이 권고한

내용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고, 이들의 권고를 한국의 맥락에 맞추거나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방식으로 반영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1970년대 미국의 교육방송국 설립 사업을 분석한 연구(김우영, 2022)가 지적하듯이, 한국이 외국의 교육원조전략에 대응하며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제도를 활용하는 사례와도 매우 유사하다.

공업계 교원양성교육 제도는 한국 사회의 중화학공업 육성과 이에 부응하기 위한 문교부의 실업교육 진흥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유나연·박환보, 2018), 특정한 공업기술 분야의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도입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교원교육 제도 자체를 외국식으로 바꾸려는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나 충남대 관계자들은 단지 독일의 교육원조 재원을 활용해서 기자재 및 관련 기술 도입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의 훈련에 관심이 있었다. 실제로 충남대 공업교육대학 교수들은 문교부의 특성화 공과대학 특별과제 연구의 지원(1979-1980)을 받아, 공업교육대학 교육과정 개선 방안이나 학과별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일련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관련 연구에서는 주로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외에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의 외국 사례를 검토하였다. 따라서 충남대-GTZ 프로젝트에서 언급된 독일의 교육과정 도입은 대학 내에서 특정한 전문기술 분야의 이론과 실습에 관한 교육내용을 의미하며, 실제로 공업계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개선에서 있어 독일은 여러 외국 사례 중 하나에 불과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논문은 1차 사료를 통해 1970-80년대 공업교원양성 교육과정에 미친 독일 교육원조의 영향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주로 한국에서 발굴된 사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원조

를 통해 바뀌거나 바뀌지 못한 내용만 확인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향후 독일 측의 사료나 당시 학생과 교직원의 구술과 같은 보다 다양한 사료를 통해 바뀌거나 바뀌지 못한 이유를 포함해서 한국 교육에 미친 외국 교육원조의 영향을 보다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양모·한상옥(1980). 공업계 실과교원양성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산업현장 실습 개선에 관한 연구. **대한공업교육학회지** 5(2). 90-98.
- 김영전·홍원표·임홍빈·정해준·이정민·권오현·성세진·김환우·이문수·강태현(1980). 공업교육대학 교육개선에 관한 연구(Ⅰ). **충남대학교 공업교육연구소 논문집** 4(1). 1-22.
- 김영화·박인중(1990). **한국경제 및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한 학교 교육체제의 대응: 한국 산업화 과정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우영(2022). 냉전시기 미국의 교육원조전략 변화와 한국 텔레비전 교육방송의 시작. **한국교육사학** 44(4). 1-31.
- 나혜심(2014). 독일의 대한개발원조와 한인 여성의 노동이주-개발원조 담론과 그 실제 사이에서. **독일연구** 28. 37-68.
- 나혜심(2017). 독일의 대한개발원조사 연구: 미제레옌을 중심으로. **독일연구** 35. 123-163.
-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2003). **과학기술의 요람 대덕연구단지 30년사: 1973-2003**. 대전: 대덕연구관리단지관리본부.
- 막스알텐호펜(2019). 서독 정부의 대한 기술원조: 호만에암/한독고등기술학교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127. 381-419.
- 맹기석·홍원표·임홍빈·이정민·박만식·이재원·김팔규·권오현·성세진·박동철·김태균·이정근(1981). 공업교육대학 교육개선에 관한 연

구(II). **충남대학교 공업교육연구소 논문집** 4(1), 1-22.

박동열 · 이부근 · 마상진(2016). **광복70년의 직업교육 정책변동과 전망**.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안홍선(2017). 20세기 한국 중등 실업교육에 대한 역사적 고찰: 실업교육 진흥정책의 실패와 반복. **교육사학연구** 27(2). 73-107.

유광호 · 류석춘(2015). 정주영의 기능공 양성과 중산층 사회의 등장: 현대중공업 사례를 중심으로. **동서연구** 27(3). 131-179.

유기승, 전상용(2021). 대한민국에 대한 독일의 ODA 지원에 관한 연구-한독 직업훈련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산업기술연구논문지** 26(2) 65-76.

유나연 · 박환보(2018). 1970-80년대 독일의 교육원조를 통한 공업계 교원양성 교육에 관한 연구: 충남대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연구논총** 39(3). 83-114.

유진영 · 정기섭(2016). 독일 기술교육 지원의 교육사적 의의: 인천 한독실업학교 설립과 의미를 중심으로(1960-1970). **한국교육사학** 38(2). 1-26.

유진영 · 김기홍(2023). 한독간 직업교육 교류에 관한 고찰: 역사적 배경과 현재적 의미. **교육의 이론과 실천** 28(2). 27-47.

이재원(1991). 무곡 이재원 교수 회갑특집기사: 회고록(대한공업교육학회의 발자취). **대한공업교육학회지** 16(1). 192-195.

이재원 · 김진순(1981). 기술과 교원양성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공업교육학회지** 6(2). 13-20.

이정근(1980). 공업계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체제적 접근. **대한공업교육학회지** 5(2). 74-78.

임홍빈(1980). 공업교육대학의 동일계 및 일반계 출신자의 기초학력 평준화 방안. **대한공업교육학회지** 5(2). 79-89.

정진성(2016). 1960년대 한국 정부의 기술인력 양성정책: 기능공 양성을 중심으로. **경제사학** 40. 321-365.

정택수(2008). **직업능력개발제도의 변천과 과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최규남 · 노태천(1999). 정부의 기능인력 수급계획에 따른 공고교육의 변천: 1962년-1981년을 중심으로. **대한공업교육학회지** 24(2). 1-14.

한국교육30년편찬위원회(1980). **한국교육30년**. 서울: 문교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1998). **직업교육훈련 100년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Max Altenhofen(2019). 서독 정부의 대한민국에 대한 기술원조: 1960/70년대의 직업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Bode, R.(1980). Vocational/industrial teacher education in Germany-with emphasis on its curricula.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Education* 5(2), 57-66.
- Bode, R.(1982). Vocational education and technical teacher educ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Education* 7(1), 17-23.
- 충남대학교 내부분서(1977.7.15). 공업교육대학 독일 무상 원조 종합보고.
- 충남대학교 내부분서(1975.10.1).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설문서.
- 충남대학교 내부분서(1977). 서독 기술협력사업 실적 및 추진현황.
- 충남대학교 내부분서(1977. 11. 20). 공업교육대학 현황 배경 현재 미래.
- 충남대학교 내부분서(1978. 1. 13). 공업교육대학의 수원의 필요성.
- 충남대학교 내부분서(1979. 3. 25). 제9차 한·독 경제실무자 회담 의제 제출 자료.
- 충남대학교 내부분서(1980. 10. 15). 한·독 기술협력 평가자료.
- 충남대학교 내부분서(작성일 불명). 충남대학교 박희범 총장이 독일에 보낸 서한.
- 충남대학교 내부분서(작성일 불명). 공업교육대학 설립 해명자료.

Abstract

The Impact of Foreign Aid on Korean Education: The Case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ark, Hwanbo

(Professor, Dept. of Educ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role of foreign educational aid in shaping Korean education after liberation. Through a case analysis of one of the foreign educational aid projects in the 1970s and 1980s, th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GTZ cooperation project, this study analyzes how German educational aid specifically changed the curriculum for teacher training in the engineering industry in Korea. To do so, we analyzed project-related materials in the possession of the project director a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s well as papers written by German experts and Korean professors who participated in the project, newspaper articles from the time, and government document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German GTZ project did not have much impact on the improvement of the curriculum for engineering faculty training other than the technical aspects of utilizing the equipment and facilities. Research and laboratory training, which were emphasized during the project, were also limited to the period of the project, and German-style curricula such as field trips and research projects were not

adopted. This suggests that the impact of foreign educational aid was limited in the 1970s and 1980s compared to the 1950s and 1960s, as institutionalized education was already in place to some extent.

Key words : Education Aid, Technical Education, Germany, Vocational Education, International Understanding

투고신청일: 2024. 07. 10

심사수정일: 2024. 08. 05

게재확정일: 2024. 08. 07.